

두바이월드컵 내일 무관중 개최 미스틱가이드·지저스팀 등 명마들 2000m 격돌

두바이의 미스틱가이드, 미국의 지저스팀, 일본의 추와위저드 등 최고의 경주마들이 모처럼 2000m 코스에서 격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됐던 '제25회 두바이월드컵'이 27일 두바이 메이단 경마장에서 열린다. 두바이월드컵은 두바이 국왕이자 아랍에미리트 총리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1996년부터 개최한 국제경마대회다. 평소 8만 명이 운집했던 두바이월드컵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대신 온라인베팅사이트인 TVG와 NBC 스포츠가 생중계한다.

하이라이트 경주는 27일 열리는 1200만 달러(136억원)가 걸린 2000m 레이시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주마 14마리가 나선다. 가장 주목받는 경주마는 두바이의 미스틱가이드다. 레이팅이 119로 출전마 중 가장 높다. 두바이 왕가 소유의 고돌핀레이싱은 이번엔 미스틱가이드를 포함해 기프트오브골드, 매그니코어스 등 세 마리를 출전 명단에 올리며 경마 명문가의 위상을 자랑했다.

미국의 대표 경주마로는 지저스팀, 슬리피아이스트드, 타이틀레디 등이 나선다. 지저스팀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한국마사회의 닉스고가 1월 미국 페가수스 월드컵에서 지저스팀을 2와 3/4마신(약 7m)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추와위저드가 나선다. 추와위저드는 사우디컵에서 9위에 머물렀지만 2020년 일본의 데트 챔피언이자 챔피언스컵(G1)의 우승마다. 사우디컵에서 3위를 차지했던 그레이트스콧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표해서 출전한다. 경주마가 달리는 거리 10m 당 무려 6만 달러(6780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 경주에서 어느 경주마가 우승을 차지할지 주목된다.

한국은 2019년 돌풍이 한국경마 사상 최초로 두바이월드컵에 진출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ujin22@donga.com

한국경마의 역주행 스타는?

마리대물 만나고 술술 풀린 박종곤 조교사

2013년 마리대물 KRA컵 클래식 V
2015년 이후 매년 순위상금 10억↑
23년차 이준철 기수 작년 최고성적



1997년 조교사로 데뷔해 18년 만에 서울경마공원 TOP10에 오른 박종곤 조교사(왼쪽)와 데뷔 22년 만에 커리어하이를 달성한 이준철 기수.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최근 오랜 무명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화려한 '역주행' 신화를 이룬 그룹이 있다. '풀린'으로 음원과 방송 순위 프로그램 1위까지 오른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다. 4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뒤늦게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한국 경마에도 브레이브걸스처럼 '역주행'의 기적을 이룬 스타 조교사와 기수가 있다.

●뒤늦게 꽃 피운 박종곤 조교사

1982년 기수로 시작한 첫 대상경주 트로피를 안기까지 28년이 걸렸다. 1997년 데뷔한 박종곤 조교사는 2015년부터 절정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유의 성실함으로 매년 두 자리 수의 승률과 10억원이 넘는 순위상금을 올린다. 2016년 명마 청담도끼를 만나면서는 상승세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그와 청담도끼가 손잡고 획득한 트로피만 8개다. 서울 경마공원 조교사 중 TOP10에 드는 기록이다.

1997년 박종곤 조교사의 데뷔 후 첫 2~3개월은 빈 마방이었다. 우연치 않게 선배 조교사의 말 12두를 받아 조교사를 시작했으나 처음부터 성적이 좋을 수는 없었다. 자연 신마 수급이 어려웠다.

하지만 2013년 경주마 마리대물을 만나며 조교사 생활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성적이 정체되어있던 마리대물을 박종

곤 조교사는 살뜰히 돌보았고, 마리대물은 그해 KRA컵 클래식의 트로피를 안겨줬다. 박종곤 조교사 특유의 '지극정성' 관리법이 성적을 내자 다른 마주들도 차츰 그를 찾기 시작했다.

박종곤 조교사는 일명 '직접 풀 뜯어 먹이는' 조교사로 불린다. 민들레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경주마가 좋아해 경마공원 주변에서 직접 채취해 먹이곤 한다. 박종곤 조교사는 "심정 사달이라고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좌우명이다"라며 "욕심을 버리고 그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곤 조교사는 지금까지 경주마와 함께 한 시간을 돌이키며 "후회 없이 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지난해 커리어하이, 이준철 기수

1999년에 데뷔해 올해로 23년차인 베테랑인 이준철 기수는 지난해 승률 22.6%, 복승률 35.8%로 기수경력에서 최고

의 성적을 기록했다. 다승도 2019년 23위에서 지난해는 다승10위, 24승으로 TOP10에 올랐다. 출전 경주가 10위에 오른 기수 중 106회로 가장 적었음에도 문세영 기수 다음의 승률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런 성적에 대해 이준철 기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덕이라며 공을 돌렸다. 10년 넘게 호흡을 맞춘 김대근 조교사(48조)와 말을 보러 다니면서 안목을 길렀고 마주, 조교사, 관리사와의 좋은 팀워크도 한몫했다. 그는 "힘든 시기에 나를 믿어준 조교사를 나 역시 믿고 일하다보니 신뢰가 쌓여 나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해 기승했던 경주마도 경마계의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다섯 번 출전해 4번 우승을 기록한 흥바라기는 이준철 기수와 호흡과 함께 3세마 다크호스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코리아던비 3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3위를 이룬 흥행질주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말로 꼽힌다.

기승 능력을 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도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 중 하나다. 그는 승마선수 출신인 아내에게 말을 세심히 다루는 법, 골때리 재갈을 왜 써야 하는지 등 기본 마술에 대해 세심한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 학창시절 레슬링을 했던 경험을 살려 지금도 매일 하루 1시간 이상 꾸준한 체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준철 기수는 "올해도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 정점을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피겨·골프·홀덤



▲김예림이 24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2021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37명 중 5위에 올랐다. 27일 열리는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올림픽 쿼터가 달릴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스톡홀름(스웨덴) | AP뉴시스

김예림·이해인 톱10...女 피겨 올림픽 쿼터 3장 '맑음'

첫 세계선수권 쇼트서 각각 5·8위 차지
순위 합계 13 이하면 올림픽 쿼터 3장

한국 여자피겨스케이팅의 간판 김예림(17·수리고)과 이해인(15·세화여고)이 첫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김예림은 24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1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0.07점, 구성점수(PCS) 33.56점, 합계 73.63점을 받아 5위를 차지했다. 73.63점은 2018년 ISU 주니어

그랑프리 5차대회의 69.45점을 뛰어넘은 개인 최고점이다. 이해인도 TES(37.29점)와 PCS(31.65점) 합계 68.94점으로 8위에 올랐다. 이들 2명 모두 시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는 처음 출전했는데, 참가자 37명 중 톱10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은 결과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쿼터를 확보할 수 있기에 27일 예정된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김예림과 이해인의 순위를 더한 숫자가 13 이하이면 올림픽 쿼터 3장, 14~28이면 2장을 확보한다. 쇼트프로그램 순위를 끝까지 유지하면 3장의 올림픽 쿼터를 거머쥘 수 있다. 강신 기자 posterboy@donga.com

저변 확대·스포츠 정착...홀덤이야기를 마치며

KHSA와 함께하는 홀덤이야기



지난해 3월 6일에 시작한 'KHSA와 함께하는 홀덤이야기'는 이번 글까지 총 50회로 마무리된다. 약 1년여의 기간은 독자들이 생소한 '홀덤'이라는 플레이게임을 눈에 익혀 가는데 결코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초반에는 독자들에게 홀덤 자체가 생소하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필자들이 '홀덤의 매력', '홀덤의 역사' 등 가벼운 이야기들을 다뤘다. 이후 '홀덤 인식의 변화', '포커 산업의 발전' 등 국내 홀덤업계의 확산과 그로 인한 저변확대에 초점을 맞춘 칼럼이 이어졌다.

홀덤 전도사로 알려진 프로 포커플레이어이자 개그맨인 김학도씨의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김학도씨는 홀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홀덤이 국민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홀덤 자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른바 '홀덤이(홀덤 어린이의 합성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포커의 기본 액션과 의미', '스타팅 핸드와 참여율', '카드를 사이에 둔 네 번의 베팅 라운드' 등 홀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접하며 홀덤의 재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또 확률 게임인 홀덤을 보다 집중적으로 설명한 칼럼들도 본격적으로 홀덤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홀덤과 확률', '드로우란 무엇일까' 등을 통해 아웃츠를 계산하는 방법과 확률적인 플레이를 통한 게임운영 방법을 풀어나가기도 했다.

서양 문화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홀덤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준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포커', '스포츠 스타들의 포커 사랑' 등 유명 인사들의 포커 스토리를 소개함으로써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독자들을 홀덤에 더욱 빠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KHSA와 함께하는 홀덤이야기'는 시사적인 내용도 빼놓지 않았다. '홀덤산업이 직면한 문제와 방향성', '시장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문화로', '홀덤문화의 현주소', '스포츠 홀덤과 도박 홀덤' 등을 통해 필자들은 홀덤 문화가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불법 도박에 관한 현실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홀덤 유투버들의 이야기도 많은 눈길을 끌었다. 굿폴드, 케이오, 한울, 유디 등 많은 홀덤 유투버들의 뒷이야기는 유명 유투버들이 어떻게 홀덤을 배우고 성장하게 됐는지 들어보는 기회였다.

이후 홀덤산업의 성장에 따른 딜러 수급문제와 교육사업에 관련한 이야기, 협회의 필요성과 '홀덤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는 과정까지 담았다. 홀덤이라는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국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홀덤의 저변확대와 스포츠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KHSA와 함께하는 홀덤이야기'는 국내 홀덤 스포츠와 문화가 정착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

이도경 홀덤 객원기자

"16강 오르겠다" 임성재, WGC 매치 1차전 승리

마지막 홀 버티며 헨리에 1홀 차 승
5조 김시우는 플리트우드와 무승부



임성재

임성재(23)가 처음 출전한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텔 테크놀로지 매치 플레이(총상금 1050만 달러·119억2000만 원) 첫 경기에서 승리했다.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러셀 헨리(미국)를 1홀 차로 따돌렸다.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2개를 뽑아내며 3홀 차까지 앞섰던 임성재는 헨리에게 10번(파4), 11번(파3) 홀을 연달아 내주며 위기에 몰렸지만 마지막 홀까지 버티며 1업으로 승리했다.

WGC 대회 중 유일하게 매치플레이로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 64명만 출전했다. 우승 상금은 182만 달러(20억6000만

원). 최하위인 64위에 그쳐도 5만 달러(5600만원)를 받는다.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위만 16강에 오른다. 이후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16조에 속한 임성재는 "긴장감이 컸고 또 재미있었다"면서 "남은 (조별리그) 두 경기도 차분히 잘해서 꼭 16강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6조의 또 다른 경기에서는 빅토르 페레스(프랑스)가 마크 레시먼(호주)을 1홀 남기고 2홀 차로 제압했다. 5조 김시우(26)는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매치 플레이답게 첫날부터 이변이 속출했다. 세계랭킹 2위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팻 쿠차(미국)에게 3홀 차 완패를 당했고, 브라이슨 디샴보(미국)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세계랭킹 64위 앙투앙 로즈너(프랑스)에게 2홀 차로 졌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세계랭킹 66위 이언 플터(잉글랜드)에게 6홀 차로 무너졌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